

# 시민휴식처로 대변신하는 광주 도심공원...“캠핑·산책·운동”

### 중앙공원 등 9개 민간공원에 2024년까지 1조5000억원 투입 불법 경작지·훼손지 100만㎡ 복원...도시공원 내로 묘지 이장

광주 도시의 민간공원들이 시민휴식처로 대변신한다.

광주시는 20일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등 9개 도심 속 공원에 민간자본 1조5000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시민휴식처로 새롭게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1조2000억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공원시설 공사비는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현재 이용중인 중앙공원 등 도심공원은 대부분 사유지로 시에서 공원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없고, 일부 토지소유자들

이 경작물 보호 등을 위해 설치한 철조망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에도 크고 작은 제약이 뒤따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10개 공원 국·공유지와 사유지 669만4000㎡를 매입해 훼손지 100만㎡를 우선 복원하고, 공원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과 중의·송암공원 내 공동묘지를 포함해 공원 내 묘지가 있는 지역에 수목을 식재해 생태 숲으로 복원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시민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훼손지는 100만3000

㎡, 이장 대상 묘지는 7961기에 이른다. 이 중 2월 말까지 2960여 기가 이장을 마쳤다.

도로로 단절된 운암산공원과 영산강, 일곡공원과 중외공원 등을 연결하는 공원간 산책로 4곳을 하나로 연결해 생태 녹지축을 확대하고 공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간별로는 ▲운암산공원~영산강 98m ▲일곡공원~중외공원 53m ▲중외공원 내 67m ▲중앙공원 내 55m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의 장기미원인 중외공원 내 송전탑 13기 중 주민주거 생활에 밀접한 10기를 양일요(2.3km) 지하로 이설·철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34%며, 철탑 이설을 위한 도로 굴착작업 등을 시행 중이다.

시는 아울러 공원안에 문화센터, 물놀이장, 캠핑장, 그라운드프리즈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여가·건강·휴양과 함께 정서생활을 향상시



광주 운암산공원과 영산강 대상공원을 연결하는 육교 조감도.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내 캠핑장 조감도. (사진=광주시 제공)

키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공원별로는 ▲중앙공원 캠핑장 ▲일곡공원 그라운드프리즈 ▲수랑공원 물놀이장 ▲송암공원 축구장 ▲봉산공원 복합문화센터 ▲운암산공원 전망대 ▲마복공원 황토건강길 ▲중외공원 피크닉광장 ▲신용(운암)공원 자연학습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까지 완료해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남진기자

##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협력 도급업체 중대재해예방 간담회 개최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도급업체 안전간담회를 최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급(계약·위탁·협력)업체 및 발주공사 등 18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광주전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1.27 시행) 주요내용 및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전파하였다.

따라서 도급사업장 특별점검(3.3~3.11)결과에 따른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건의사항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도급사업의 대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확립, 재해예방목표 설정



및 달성방안, 비상시 조치 등에 대한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중대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도시가스 소외지’ 12개 마을에 LPG 배관망 구축

전남도, 연료비 절감·안정적 공급 기대

전남도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12개 마을 737세대를 대상으로 도비 17억 4000만 원을 들여 ‘2022년도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밀도가 낮아 배관투자의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없는 농어촌마을에 도시가스 수준으로 LPG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규모 농어촌 마을의 유휴부지 등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세대에 가스 배관과 보일러, 안전장치, 계량기 등을 연결한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희망 12개 시군으로부터 62개 마을을 신청받아 사업의지와 저장탱크 부지 확보, 세대 밀집도 등을 종합 평가해 10개 시군 12개 마을을 선정했다.

마을 규모에 따라 소규모(30~59세대) 6개 마을, 중규모(60~99세대) 5개 마을, 대규모(100세대 이상) 1개 마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소규모는 개소당 9000만 원, 중규모는 개소당 1억 8000만 원, 대규모는 개소당 3억 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자체 시범사업 2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0년 10개 마을, 지난해 12개 마을에 3년간 도비 30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도 자체 사업과는 별도로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고흥·남양·화순·정천·영광·한성·신안·광산, 4개 마을이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투입한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업으로 도내 25개 마을에 국비 38억 원을 들여 1339세대에 LPG를 공급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1면에서 계속〉 따라서 장성군은 “장성군 공설운동장 건립타당성용역(2015년 7월)”을 거쳐 해당 지역에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기로 했다”며 “하천구역에 공설운동장을 짓는 행위가 불법이어서 합법적인 건축을 위해 취압천 기본계획 변경용역(2016년 2월) 실시로 취압천 기본계획을 변경(2017년 1월)하는 데 성공해 최종적으로 공설운동장 건립이 가능해진 것이다”고 밝혔다.

◆장성군 반박에 따른 언론사 ‘2차보도’

장성군의 반박에 지역 언론사는 2월 28일 “군민의 ‘승리’, 시민이 진정한 ‘영웅’”이란 제목으로 “지난달 보도는 완전한 ‘진실’로 ‘유군수, 잘못 시인하고 군민들께 사죄해야’한다고 보도했다.

먼저 언론사는 군의 반박자료에 대해 조목

조목 군청의 입장이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김양수 전 군수가 2014년 4월과 5월에 각각 발행한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개선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책자형 보고서는 2천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안을 담고 있다는 것.

또 ‘취압천 물길은 김양수 전 군수가 계획했다’는 장성군의회 속기록을 게재했다. 유 군수의 민선 6기 임기 중인 2016년 10월 열린 장성군의회 제284회 본회의에서 임동섭 의원이 “21세기(장성군 홍보 책자)에 보니 물길을 돌리고 거기에 공원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유두석 군수님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공설운동장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며 “물길을 돌리는 것은 민선 5기(김양수 전 군수)에 했던 것이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어 “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날 의회에 참석한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정정요구도 없었다”며 “임동섭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의미”고 확인했다.언론사 관계자는 “후속 보도 내용에 대해 장성군이 어떠한 후속행동이 없다”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것뿐만 아니라 몇 건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후속보도에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성군 문경배 행정복지국장장은 “처음에 배포했던 반박자료를 읽어보면 행정원칙상 (진행됐던)순서대로 다 나열돼있다”며 “언론사에서 그 자료에 대해 다시 반박보도를 했지만 반론에 대해 대응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박재범기자

## 광주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15년만에 ‘재시동’

광주시가 새 정부 공약 중 하나로 포함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추진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원사업 해결에 첫 걸음을 내디뎠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추진 전문가위원회’ 착수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 전남대 윤택민 교수, 전남대 송호천 교수, 조선대 이경진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최일우 수석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관

계자 등 핵의학과 광기술 전문가 12명과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대 윤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추진 전략과 신속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담아야 할 핵심기반 등을 논의했다.

원자력의학원은 ▲난치성 암치료를 위한 3대 입자선치료 ▲감마선 멸균 ▲방사선 의학 연구 ▲서남권 방사능 비상진료 등을 담당하며, 4만9500㎡ 부지에 5년 동안 사업비 5000억 원을 들여 설립한다는 기본구상에 뜻을 같이 했다.

김재환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월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비율
5분위	240,833원	1,141원	1.7%
4분위	125,531원	1,711원	2.1%
3분위	79,147원	2,141원	2.7%
2분위	48,103원	2,697원	5.3%
1분위	26,697원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립중앙의료원 1577-1000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